

■ 신입회원사

컴퓨터 역사 이끄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 - 한국아이비엠

박상정 / 기획조사부

오늘날 소비자들은 향수에서부터 자동차, 식료품과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에게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나 할부금 계산, 대출관련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 드는 비용의 8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항공사도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주요 항공기의 운항정보를 얻고, 좌석을 예매할 수 있도록 해서 항공권 발매 비용을 대폭 줄였다.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은 기업에게 기본적인 업무의 확장과 더불어 경쟁방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아이비엠에서는 이것을 이-비즈니스라고 부른다.

이-비즈니스로 위기 극복

이-비즈니스는 개념이나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실하고도 심각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아이비엠의 광고는 이러한 이-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이비엠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 경쟁력의 근간이 바로 이-비즈니스의 구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비엠 역시 이-비즈니스의 도입으로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1914년 토마스 왓슨에 의해 설립된 이래, 아이비엠의 역사는 곧 컴퓨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회사로 자리잡았지만, 아이비엠에도 위기는 있었다. 1993년에 미국 기업 사상 최대규모인 8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한 때 전세계에 41만명이나 되었던 직원이 93년부터 95년에 이르는 동안 22만명으로 줄었다. 한국아이비엠도 예외는 아니어서 1,500여명의 직원이 1,000명으로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아이비엠은 과감한 개혁과 변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작년 매출액이 817억 달러로 4년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 현금 보유액도 58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IMF 도입 당시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위해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이비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1년 연구개발비 58억 달러

아이비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6개 나라의 8개 연구소에서 2,900명의 연구원이 활동중이며, 작년에 미

국에서만 2,658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받은 것이며 지금까지 미국에서 1만 4,000여건, 전세계에 걸쳐 3만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에 아이비엠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58억 달러였다.



한국아이비엠은 67년에 설립됐으며 작년 매출액은 4,634억원, 지난 4월말 현재 직원 수는 1,510명이다. 한국아이비엠이 제공하는 주요 사업은 정보기술 토털솔루션 제공, 아웃소싱 서비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판매·임대, 시스템 통합과 컨설팅, 컴퓨터 기술교육 등이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한국아이비엠도 이-비즈니스가 제시하는 미래의 변화에 광고의 중심을 두고 있다. 다른 게 있다면 '한국아이비엠, 지난 3년간 수입 5억불 수출 30억불'이라는 카피를 광고 하단에 넣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아이비엠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